일본시장에서 철수한 해외기업

2009년 11월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철수했다. 한국 대기업 중에서 3번째로 일본시장을 철수한 사례이다. 여기서는 일본시장에서 철수한 해외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

□ 2009년

1. 현대자동차(한국 자동차)
   - 11월 상용차 판매 철수, 버스 판매 및 AS는 계속
2. Texus Instruments(미국 반도체)
   - 6월 기술센터 폐쇄
3. Michelin(프랑스 타이어)
   - 노조와 폐쇄 교섭중
4. Gucci, Versace, Chanel(명품브랜드)
   - 일부 백화점에서 철수 예정
5. Wendy’s(미국 햄버거)
   - 연말에 철수 예정

□ 2008년

1. Nokia(핀란드, 핸드폰)
   - 판매부문 철수, 연구개발 및 아웃소싱은 계속
2. Pifizer, Novartis(미국, 의약)
   - 연구소 폐쇄

☐ 2007년

1. 삼성전자(한국)
   - 11월 가전부문 철수
2. Bayer(독일 의약)
   - 연구소 폐쇄
3. Glaxo Smith Kline(영국 의약)
   - 연구소 폐쇄

☐ 2006년

Merck(미국 의약)
   - 연구소 폐쇄

☐ 2005년

네이버(한국 IT)

☐ 2004년

1. Carrefour(프랑스 소매)
2. (영국 IT)

☐ 2003년

Vidal Sasoon(싱가포르)

☐ 2002년

대우증권(한국)

☐ 2001년

Commonwealth(호주 엔터테인멘트) 등 유럽 기업 다수 철수

☐ 2000년

BNP(프랑스), Schroders(영국 금융) 등 유럽기업 다수 철수